



국가 이차전지 산업 새 도약 이끈다

전북자치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 출범... 총 291억원 규모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관련사진 2면>

이번 협의체 발대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TP, KIST 전북분원, 성일하이텍, 한솔케미칼, 전북대, 군산대 등 참여기관·기업뿐만 아니라 사업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KIST 전북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일하이텍, 한솔케미칼, 나노솔루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유니, 원투자파트너스 등 12개 기관·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들 기관은 전북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역 기업 지원과 인프라 조성, 투자 유치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진 기술세미나에서는 △친환경·고성능 유가금속 회수 및 재활용 기술동향 △실리온계 고성능 복합음극 제조기술 개발 방향 등이 소개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291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간 41억



'일일 명예역장' 된 김관영 도지사

1일 전주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와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레일의 '일일 명예역장 체현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이다.

사업은 △LFP(리튬인산철)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 △실리온계 복합음극 고성능화 △기술사업화 및 수출형 산업모델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점유율이 높아지는 LFP 폐배터리를 친환경

경 공정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회수하고, 기존 흑연 음극 대비 에너지밀도가 높은 실리온계 복합음극소재 개발에 집중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

재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는 99% 순도의 리튬 회수 기술과 20% 이상 함량의 실리온 음극재 제조 기술 등을 확보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 공급망 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매출 △140명의 신규 고용 △137건의 연구 성과(특허, 논문 등) 창출이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살바토레 사키티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국, ICAO 이사국 9연임 성공

<국제민간항공기구>

김윤덕 국토부장관 첫 성과... 국토부,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9회 연속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회 연속 선출되는 쾌거로 국제적 첫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국제 항공 규범을 주도하는 주요 기구에서 장기적 입지를 확보하며 글로벌 항공 외교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날 30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183개 투표국 중 158표를 얻어 파르3(지역 대표국) 이사국으로 당선됐으며 이로써 2001년 첫 진출 이후 9연임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ICAO 이사회는 국제항공 정책과 표준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36개국 이사국이 3년마다 선출된다. 파르1(주요 항공국), 파르2(항행시설

기여국), 파르3(지역 대표국)으로 나눠 선거가 치러지며, 선출 이후에는 동일 권한을 행사한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UAE, 카타르,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과 함께 당선됐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민간 합동 대표단을 꾸려 총회 전반기 교섭에 나선 가운데 이뤄진 성과다.

김 장관은 지난날 23일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 항공 전환,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항공 연결성, AI 등 신기술 수용, 국가 간 연대 강화"라는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며 각국 지지를 요청한 가운데 영국, 일본, 사우디 등 장관급 인사와의 연해 면담도 성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9연임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개발도상국 대상 항공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넓히고, 항공 분야 탈탄소 전환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이사국 정원이 40개국으로 확대될 시점에 맞춰 현재 파르3에서 파르2로 상향을 추진한다. /권희성 기자



1일 원주 비비정에예술열차 광장에서 '만경강 물고기철길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윤희태 원주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첫 삽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완주의 새 랜드마크' 만경강 물고기철길 첫 삽

비비정에 보행로·스카이워크·전망쉼터 조성

완주군이 만경강의 옛 철교 자리에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세운다.

1일 완주군은 비비정에예술열차 광장에서 '만경강 물고기철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지역 대표 관광객점 조성을 향한 첫 삽을 떴다.

이날 행사에는 윤희태 원주군수,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관광객 등 400

여 명이 참석해 만경강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추진되며, 총연장 405m의 보행로, 200m 스카이워크 및 전망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비비정에예술열차, 구만경강철교, 삼례책마을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문화·관광 복합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이번 조성을 통해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 향

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윤희태 군수는 "오늘 성황리에 열린 기공식이 전북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

추석 연휴에 따라 10월 13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2025 국제종자박람회

KOREA SEED EXPO 2025

2025. 10. 22. 수 - 10. 24. 금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www.koreaseedexpo.com